문학실험실
미지의 언어 탐구

신 간 보 도 자 료

2024년 1월 24일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47 한려빌딩 302호 | 전화 02-765-9682 | 팩스 02-766-9682
휴대전화 010-4212-0752 | 이메일 munhak@silhum.or.kr | 홈페이지 www.silhum.or.kr

쇼츠와 스킵에 점령당한 신인류를 위하여

구병모 중편소설

『단지 소설일 뿐이네』

ISBN 979-11-984817-1-9 03810 / 164쪽 / 양장 / 값 10,000원 / 출간일 2024년 1월 20일

언론사 문화부 문학 담당 기자, 인터넷서점 홍보 담당자께 보내드립니다.

사단법인 문학실험실(대표 이인성) | 담당 최하연 (편집주간) 010-4212-0752

호모 스키펜스(Homo Skipens) 시대의 소설과 소설 쓰기에 대해

『위저드 베이커리』 『파과』 『네 이웃의 식탁』 『상아의 문으로』 등을 펴낸 구병모 소설가의 신작 중편소설이 문학실험실의 <틂-창작문고 시리즈> 21권으로 출간되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좋은 소설 작품이 그렇듯이, 이 작품 역시 줄거리를 따로 요약하기가 불가능하다. 요약하는 순간, 소설은 소설 밖으로 튕겨나 고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식의 요약은 '의미'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 호모 스키펜스(Homo Skipens; 스킵하는 인류를 뜻하는 신조어로 그 명명 과정 또한 작가의 말을 통해 소설의 일부로 편입된다)들은 작품을 향해 이렇게 물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어쩌자는 말인가". 작가는 이렇게 답한다. "단지 소설일 뿐이네".

구병모의 신작 중편소설은 소설 쓰기에 관한 소설일 수도 있으며, 소설 읽기에 관한 소설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읽고 나면 세계는 그대로이되,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다층, 다변의 입체적인 텍스트이다.

소설은 무엇일까요. 서로 알 수 없는 작가와 독자 사이에 놓인 '이터널 브리지' 같은 것일까요.

소설 속에서 S는 '이터널 브리지'에 들어서서 사라집니다. 과연 어디로, 왜 등의 질문이 당연히 떠오르게 되지만, 인과도 결론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평생을 순서대로 새겨놓은 듯한 세 사람을 따라가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 세 사람이 정말 S의 삶을 대변하거나 상징한다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S가 그렇게 느꼈을 뿐입니다. 그 세 사람은 천사도 악마도 아니지만, 보기에 따라 삶의 다른 지점으로 S를 이끌고 가는 동방박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릴없는 공상 속에서나 진실 여부가 손톱만큼 정도 헤아려지는 이야기를 지어낸 죄를 벌하러 온 저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모두 S의 공상 속에서나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S는 사라지고자 사라진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한 것은 더더욱 아니며, 세계를 완전히 등지고자 자신이 올라선 다리 한쪽을 부러 끊어버린 게 아닙니다. S는 그저 오랫동안 소설을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는 상태였으며, 아마도 계속 쓰게 될 운명이었는지 모릅니다. 환멸과 권태, 오욕과 명예 등에 시달리면서도 결국 소설을 쓰는 자는 소설을 쓰지 않으면 실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존재 의미를 잃게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것으로 일면식 없는 타인들의 공감과 반향을 일으켜야 하는 일을 평생 해야 한다는 건 스스로 끝없이 이 세계에서 지워내야만 가능해지는, 악무한의 굴레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워내기 위해 소설가는 계속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_ 강정 시인

찢긴 말들 혹은 부재의 색을 알아보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일을 거듭하면서...

다리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시작에서 끝으로, 발단에서 결말로 건너가는 일, 그것은 빨리 감기 버튼으로써가 아니라, 두 발로 천천히 걷다가 가끔은 정지나 되돌리기 버튼으로써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네. 몰입과 속도감을 저해하는 요철과 장벽을 밀어버리고 빠르게 넘어가는 사람들, 불요함과 비실용의 앞에서 스킵하기를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이 새로운 인류로 등극한 지 오래인 세상이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여 세계 전부가 다만 하나의 이야기로 수렴될 때까지, 혹은 나 자신이 영원한 기착지에서 맴돌다가 부적절한 자리에 마침표로 남을 때까지, 의미의 난간에 매달린 말들이 까마득한 아래에서 입을 벌린 무의미의 심연으로 낙하할 때까지, 나는 더듬거림과 숙고로써만 저 건너편에 닿으려고 하네. 찢긴 말들 혹은 부재의 색을 알아보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일을 거듭하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다리 한가운데서 어느 쪽으로도 망명할 수 없는 조난자가 된 이유일지도 모르겠네.

_147쪽

저자 소개 : 구병모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08년 '창비청소년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단 하나의 문장』『있을 법한 모든 것』등과 장편소설『위저드 베이커리』『아가미』『파과』『네 이웃의 식탁』『상아의 문으로』등을 펴냈다. 오늘의작가상, 김유정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차례

_단지 소설일 뿐이네

_작가의 말
_感•이것 역시 단지 허구일 따름입니다_강정 시인